

아동의 귀인양식과 역량지각

Children's Attributional Style and Self-Perceived Competence

천안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강사 서선주

Dep. of Child Welfare, Chonan University
Lecturer : Suh, Sun Joo

◉ 목 차 ◉

- | | |
|------------|------------|
| I. 문제제기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attributional style and their self-perceived competenc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01 third and sixth grades. For data analysis, two-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as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children's attributional style and their self-perceived competence. Children who attributed good events to internal, stable, or global causes and bad events to external, unstable, or specific causes perceived themselves more competent.

I. 문제제기

자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1890년 William James에 의해 시작된 이래, 자아개념은 꾸준히 학자들의 관심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자아 또는 자아실현을 강조하는 심리학자들이 아동의 자존감이 성숙과 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Harter, 1982).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성인의 자아가 그의 행동과 삶을 결정하듯이 아동의 자아도 그의 생활

과 발달을 촉진 또는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자들은 아동의 자아지각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고, 각 연구자들마다 자아개념, 자존감, 자아효율성, 역량지각 등의 구성개념들로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자아평가적인 구성개념에 대해 명확하고 설득력있는 조작적인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개념들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도구들이 개발되어 왔으나(Coopersmith, 1967), 이러한 측정도구들은 인지적 능력, 신체적 매력, 도

덕성, 인기도, 신체적 기술과 같은 이질적인 영역의 문항들에 대한 점수를 단순히 합산하여 그 총합된 점수로써 자아개념이나 자아존중 정도를 평가했기 때문에 방법론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Harter(1982)가 아동용 역량지각 척도(PCSC)를 개발하면서 역량지각에 대한 발달심리학자들의 관심은 달라졌다. Harter(1982)는 아동이 약 8세경이 되면 역량의 각 영역간의 구분을 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영역의 역량에 대한 평가를 초월해서 전반적인 자아가치까지 지니게 된다고 보았다.

이처럼 자아존중의 분화된 개념으로서의 역량지각 연구는 1982년 Harter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그 후 Stipek(1985)과 Cause(1987)의 연구에 의해 영역별 역량지각 개념의 타당성이 지지되었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연구의 역사가 짧아서 수행된 연구가 적으며, 국내에서도 소수의 연구만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자아개념이나 역량지각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역량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공인숙, 1989; 이남기와 박정희, 1995), 가정환경 및 또래 환경(이주리, 1994), 사회적 관계망(한중혜, 1996)에 따른 아동의 역량지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적 변인뿐만 아니라 아동 자신이 세상을 지각하는 방식에 의해서도 자신의 역량을 지각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예컨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행동이나 사건의 원인을 지각하는 방식 즉 귀인양식은 주어진 과제에 대해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이 유능하다고 지각하는 역량지각과 상당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역량이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비교를 통해 발달하며 의미 있는 경험을 통한 자기자신에 대한 지각인 것과 마찬가지로 귀인 또한 매우 소급적이며 수많은 경험을 반영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동의 귀인양식과 역량지각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단지 학습성패 상황에 대한 귀인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다양한 감정반응의 일부로서 유능감을 고려한 연구(김연주, 1988; Weiner,

1978)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연구들에 의하면, 성공 결과를 내적 또는 안정적 요인에 귀인할 경우 개인은 유능감, 우월감, 만족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지만, 실패결과를 안정적 요인에 귀인하면 부정적 정서를 느낀다는 것이다. 수행된 연구의 결과들도 아직 불일치한 부분들이 있어 보다 다양한 귀인 상황과 귀인차원들을 포함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주 관심 영역이었던 학업성취 상황뿐만 아니라 사회적(대인적) 상황에 대한 아동의 성패귀인과 역량지각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선행연구들(오혜영, 1982; Lifshitz, 1973; 최우영, 1994; 하영희, 1995)에서 엇갈린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귀인의 성차, 연령차 문제를 고찰하려고 한다. 마찬가지로 아동의 역량지각 측면에서 역량의 상이한 영역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김치영, 1987; 공인숙, 1989; 이주리, 1994; 한중혜, 1995, 1996; Harter, 1982; Cause, 1987)를 보이는 연령차, 성차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아동의 귀인양식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둘째, 아동의 역량지각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셋째, 아동의 귀인양식과 역량지각은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귀인

1) 귀인이론

인간은 자기와 타인의 행동, 그리고 변화된 여러 가지 사상을 일으킨 원인을 탐색하고 추정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원인 추리의 과정을 귀인이라고 한다.

귀인이론은 Heider(1958)에서부터 시작되는데, Heider는 원인의 소재 개념을 소개했다. 즉 사람들이 행동이나 사건들을 설명하는 데 내세우는 원인들은 개인 내에서 시작되는 내적 요인들과 환경적 원천

에서 생기는 외적 요인들로 나누어 질 수 있다. Kelley(1972)는 가장 공식적이고도 포괄적인 귀인분석을 전개해 왔으며, 이것을 공변모형이라고 불렀다. 그는 인간이 특이성 정보, 일치성 정보, 일관성 정보와 같은 세가지 정보를 모두 사용함으로써 귀인에 도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Kelley에 이어 귀인 이론을 더 체계화시킨 Weiner는 Heider의 귀인 이론을 교육의 장에 적용하여, 어떤 성취장면에서의 성공, 실패의 원인을 추리하는 데에서 발전된 성패에 대한 귀인이론을 제시하면서 성패에 대한 인과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교육사태와 관련된 귀인의 성격을 기술하면서 이러한 원인들을 원인의 소재, 원인의 안정성, 통제가능성의 세 차원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러한 Weiner의 3차원적인 귀인모형은 개인의 성취상황에서 성공결과와 실패결과를 어디에 귀인 시키느냐를 알아보고자 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2) 아동의 연령과 귀인

선행 연구(Dweck & Elliot, 1983; Stipek, 1984)에 의하면 약 7세 정도의 아동은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여전히 자신의 능력이 높고 그 과제를 잘 할 수 있다고 변함없이 믿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연구자들은 아동들이 미래의 성취를 과대평가하는 이유를 그들의 원망적 사고와 인지적 미숙 때문이라고 하였다. 7~9세경에 아동은 안정된 성향의 측면에서 자기와 타인을 구분하기 시작하므로 너무 어린 아동은 능력과 노력을 혼동하여 노력하기만 하면 항상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Shaffer, 1994). 12~13세가 되면 많은 아동은 능력, 노력, 운, 과제난도를 구분할 수 있지만, 12~13세 이전의 아동도 성인처럼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원인들을 점차적으로 고려하게 된다는 것이다. Shaffer(1994)는 귀인의 발달적 변화를 고찰한 후 아동들도 분명히 자신의 성취결과를 통제소재와 안정성지각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귀인하며, 귀인패턴이 미래의 성취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통제소재 차원에서 귀인의 발달적 경향을 연구한 Lifshitz(1973)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내적 귀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을 보고하였고, Crandall 등(1965)은 아동의 귀인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비교적 안정된다고 하였다. 연령에 따른 귀인양식을 비교한 국내연구들(최우영, 1994; 하영희, 1995, 김선미, 1995)은 그 결과가 일치하지 않으며, 주로 통제의 소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귀인의 발달적 경향을 고찰하기 위하여 귀인의 다양한 차원들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 아동의 성별과 귀인

귀인의 성차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성취상황에서의 귀인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예컨대 Deaux(1984)와 Frieze(1982) 등은 여성들은 성공을 불안정한 원인에, 실패를 안정적인 원인에 귀인시키는 반면 남성들은 성공을 안정된 원인에, 실패를 불안정한 원인에 귀인시킨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결과는 Halperin과 Abrams(1978)의 연구와도 일치하는데, 남자들은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을 더욱 내적 요인에 귀속시킴으로써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이나 확신감이 있으며 다음 행동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갖는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달리 아동의 귀인에 관한 연구 결과는 일관성이 없다. 즉 여아들의 경우 성공의 원인을 주로 외적 원인으로 돌리고 남아의 경우에는 대부분 내적 귀인을 한다는 연구결과들(Feather, 1969; Nicholls, 1975)이 있으나, 내-외 귀인에 있어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들(하영희, 1995; 이미순, 1995)도 있다. 그러므로 아동의 귀인양식에 있어 성차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단언하기는 어렵다.

2. 역량지각

1) 역량지각의 개념

사회나 학교에서 성공하는 사람의 속성을 구별해 내는 데 사용되고 있는 개념으로서의 역량(Ogbu, 1981)이라는 용어는 학자마다 그 개념 정의를 달리 하고 있다. 예컨대 Inkels(1968)는 역량을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으며, 문화생태학적 관점에서 인간 역량의 기원을 연

구한 Ogbu(1981)는 역량을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문화적으로 지정된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역량지각은 Coopersmith가 제안한 자존감의 분화된 개념으로서, 기존의 자아평가 척도에 대한 방법론적 개념적 단점을 보완한다고 여겨진다(Cause, 1987; Harter, 1982). 특히 Harter(1982)는 역량이 인간의 전반적 자아가치감과 관련된 많은 영역 중 단지 하나의 영역이며, 전반적 자아가치감은 각 영역의 세부적 평가를 더한 합 이상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는 인지, 사회, 신체영역에 덧붙여 전반적 자아가치를 평가하게 함으로써 자아의 개념모형과 측정방법에 있어서 단일차원적인 것과 다차원적인 것을 통합하려 하였다. 즉, 약 8세경이 되면 아동은 상이한 영역의 역량을 구분하며, 각 영역을 초월한 전반적 자아가치까지 갖게 된다고 하여 역량지각의 다차원성과 위계성을 강조하였다.

2) 아동의 연령과 역량지각의 발달

아동의 역량지각을 연구한 학자들(Nicholls, 1979; Harter, 1982)은 아동의 연령 증가에 따라 역량지각 능력(정확성)이 발달함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8세 이상의 아동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의 자신의 역량을 구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영역을 넘어서는 인간으로서의 자아가치를 지니게 된다(Harter, 1982). 아동의 자아개념이 아동중기까지 Piaget의 인지발달 단계와 관련되어 발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량지각의 발달도 인지능력의 발달을 기초로 한다.

그런데 역량지각의 정확성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향상되고, 약 8세 이상의 아동들이 자신의 역량에 대한 판단을 영역에 따라 다르게 한다는 점은 학자들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역량지각 발달이 세부 영역에 따라 어떠한가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즉 몇몇 연구들(공인숙, 1989; 이주리, 1994; 김치영, 1987)은 역량지각의 연령차를 보고하고 있으나 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3) 아동의 성별과 역량지각의 발달

아동의 성별에 따른 역량지각에 관한 연구들은 역량지각의 각 영역별로 서로 다른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인지적 역량과 사회적 역량에서 성차가 없다는 연구들(김치영, 1987; 공인숙, 1989; 이주리, 1994; Harter, 1982)이 있는가 하면 남아가 여아보다 인지적 역량이 높다는 연구결과(한중혜, 1996)도 있다. 신체적 역량에서는 대체로 성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남아가 운동이나 신체활동에 대해 여아보다 역량을 높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치영, 1987; 공인숙, 1989; 이주리, 1994; 한중혜, 1996; Harter, 1982). 그러나 한중혜(1995)의 연구에서는 성차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신체 운동 역량에서 반드시 남아가 자기 역량을 높게 지각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전반적 자아가치에 대한 연구결과도 비교적 일관성이 없다. 예컨대 Stigler 등(1985)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옮겨가는 시기에 있는 아동들의 경우, 여아보다 남아가 자아가치를 더 높이 지각한다고 보고하였으나 다른 연구들(김치영, 1987; 공인숙, 1989; 이주리, 1994; 한중혜, 1995; Harter, 1982; Cause, 1987)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아동의 역량지각의 영역별로 대체적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각 영역별 성차를 확신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역량지각의 성차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많은 후속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3. 아동의 귀인양식과 역량지각

아동의 귀인양식과 역량지각의 관계를 고찰한 선행연구가 부족하므로, 역량과 관련된 개념인 자아개념, 자아가치, 감정반응 등에 관한 연구를 먼저 고찰해 보고자 한다. 예컨대 Marsh 등(1984)은 귀인과 자아개념 차원들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성공의 경우 능력 및 노력 귀인과 학문적 자아개념간에 높은 정적 상관이 있

지만, 실패의 경우 능력귀인과 학문적 자아개념간에 부적 상관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자아가치감 이론의 체계 안에서 수행된 연구(Covington & Omelich, 1979)에서는 자아가치감과 내적-외적 귀인 및 안정-불안정 귀인 요인들간에 관계가 있다는 점이 강력하게 지지되고 있다. 즉 실패를 노력보다 능력에 귀인할 때 실패는 수치감, 기대수준의 저하, 자아가치감 저하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귀인양식과 역량지각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비교적 근접한 접근으로서 Weiner(1980)의 연구에서는 성취상황에서 개인 자신의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을 어디에 귀속하는가의 귀인과정을 통해 그 성취결과에 대한 개인의 정서적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김연주(1988)는 학업 성취의 귀인과 정서반응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는데, 성공결과를 내적 요인 또는 안정된 요인에 귀인할수록 긍정적 정서반응 즉 유능감, 우월감, 만족감을 느끼나 실패결과를 안정적 요인에 귀인할수록 부정적 정서반응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상과 같이 귀인과 자아개념, 자아가치감, 감정 반응 등의 관계는 선행연구에서 고찰되었으나, 아동의 귀인양식과 역량지각의 관계는 직접적으로 고찰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래 연구의 주 관심 대상이 되어온 학업성취상황 뿐 아니라 사회적 상황도 포함하여 성공과 실패에 대한 아동의 귀인양식과 역량지각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충남 천안시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 남녀 아동이며, 아동의 가정환경 수준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을 달리해 두 개의 초등학교를 유의표집하였다.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이 선택된 이유는, 귀인양식이 3학년 경에 비교적 안정되며(Crandall et al., 1965) 약 8세 이후에 역량의 각 영역에 대한 구별된 지각을 할 수 있기(Harter, 1982)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인	질 단	빈도(백분율)
아동의 학년	3학년	153(50.8)
	6학년	148(49.2)
아동의 성	남	145(48.2)
	여	156(51.8)
부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30(10.0)
	고졸	159(52.8)
	대졸이상	112(37.2)
모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52(17.3)
	고졸	193(64.1)
	대졸이상	56(18.6)
계		301(100)

때문이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2. 측정도구

1) 아동의 귀인양식 측정 도구

아동의 귀인양식 측정도구는 Kaslow등(1978)에 의해 개발된 아동용 귀인양식 질문지(CASQ: Children's 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를 기초로 한유진(1994)이 재구성한 귀인양식 질문지를 참조하여 제작하였다. CASQ는 특정 사건에 대한 귀인이 아니라 전반적인 개인의 귀인 유형을 측정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긍정적(성공) 상황과 부정적(실패) 상황에 대한 원인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의 질문지는 각 상황에서 귀인의 3차원(내외성, 안정성, 전반성)을 나타내는 문항들이 각 7개씩 존재하는데, 내외성은 원인의 소재가 개인 내부인가 혹은 외부인가를, 안정성은 사건의 원인이 안정적인가 혹은 일시적인가를, 전반성은 원인이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적용되는가 또는 특정 상황에만 적용되는가와 관련된다. 총 문항수는 42문항으로서 한 응답자의 자료에서 6개의 하위척도가 추출된다. 또한 문항의 내용은 성취에 관한 문항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질문지는 초등학교 교사 2인으로부터 질문의 내용과 난

이도에 관한 조연을 구하여 제작되었고, 아동학 전공자 3인에 의해 안면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계수를 이용하여 검증했는데, 귀인양식의 긍정적 차원은 $\alpha=.68$ 이고 부정적 차원은 $\alpha=.61$ 이었다.

2) 아동의 역량지각 측정 도구

아동의 역량지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Harter(1982)의 역량지각척도(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를 근간으로 김치영(1987), 공인숙(1989), 이주리(1994) 등의 역량지각척도를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본 척도는 인지역량, 사회역량, 신체역량, 전반적 자아가치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며 총 20문항으로 구성된다. 본 척도는 아동학 전공자

3명으로부터 안면타당도를 구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5$ 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1997년 12월 7일부터 12월 12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3학년 4학급, 6학년 4학급 346명이 질문에 응답하였고, 결손가정의 아동과 부실기재를 제외한 301명의 응답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분석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귀인양식 점수 및 역량지각 점수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아동의 연령

<표 2> 아동의 연령, 성별에 따른 귀인양식

하위범주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자승화	F
성공-내적	연령(A)	1	5.48	5.48	2.53
	성별(B)	1	4.81	4.81	2.22
	A×B	1	3.15	3.15	1.45
	오차	297	644.26		
실패-내적	연령(A)	1	28.34	28.34	12.77***
	성별(B)	1	7.61	7.61	3.43
	A×B	1	10.13	10.13	4.56**
	오차	297	654.74	654.74	
성공-안정적	연령(A)	1	28.54	28.54	11.48**
	성별(B)	1	1.42	1.42	.57
	A×B	1	.61	.61	.25
	오차	297	738.17	738.17	
실패-안정적	연령(A)	1	.13	.13	.06
	성별(B)	1	2.01	2.01	.90
	A×B	1	.98	.98	.44
	오차	297	664.41	664.41	
성공-전반적	연령(A)	1	.11	.11	.04
	성별(B)	1	8.04	8.04	3.28
	A×B	1	.41	.41	.17
	오차	297	728.55	728.55	
실패-전반적	연령(A)	1	.28	.28	.11
	성별(B)	1	3.88	3.88	1.54
	A×B	1	.17	.17	.07
	오차	297	745.39	745.39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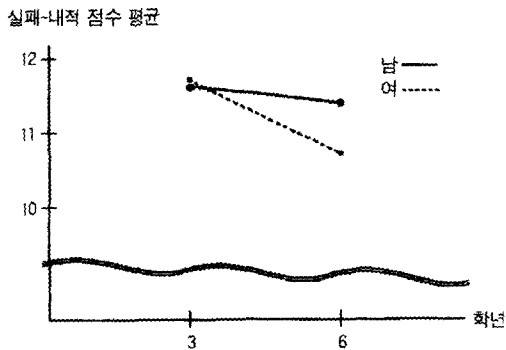
및 성별에 따라 아동의 귀인양식과 역량지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하였다. 아동의 귀인양식과 역량지각간에 상관이 있는지를 고찰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으며, 역량지각에 대한 귀인양식 하위차원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를 구하였다. 이상의 자료분석은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귀인양식

아동의 연령(3학년, 6학년)과 성별(남, 여)에 따른 귀인양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패-내적 차원에서 연령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으며, 성공-안정 차원에서는 연령의 주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패-내적 차원의 상호작용 경향을 보다 자세히 살펴 본 결과는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즉 아동의 실패-내적 차원 점수는 남아와 여아의 경우 모두 3학년보다 6학년이 약간 낮은 경향을 보이나, 여아의 경우는 연령 차이가 남아에 비해 더 크게



<그림 1> 귀인의 실패-내적 차원에 대한 연령,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표 3> 귀인의 실패-내적 차원에 대한 단순주효과 검증

		평균	t
남자	3학년(N=75)	11.61	.96
	6학년(N=70)	11.37	
여자	3학년(N=78)	11.64	3.98***
	6학년(N=78)	10.68	

*** p<.001

나타난다.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경우 독립변인의 주효과는 별 의미가 없으므로 단순 주효과 검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귀인의 실패-내적 차원 점수는 남아의 경우 3학년과 6학년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여아의 경우는 학년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여아의 경우 연령의 증가에 따라 귀인의 실패-내적 점수가 낮아짐으로써, 실패적 사건에 대해 내적 귀인을 하는 경향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한편 귀인의 성공-안정 차원에서는 연령의 주효과가 나타나 3학년이 6학년에 비해 성공-안정 차원 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공적 사건에 대한 안정적 귀인 경향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2.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역량지각

아동의 연령(3학년, 6학년)과 성별(남, 여)에 따른 역량지각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4>에서와 같이 신체역량에서 연령과 성별의 주효과가 나타났으며, 전반적 자아가치 영역과 역량지각 전체에서는 연령의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3학년(14.76)은 6학년(12.84)보다 또한 남아(14.51)가 여아(12.84)보다 신체역량을 높게 지각하였다. 또한 3학년(15.22)은 6학년(13.64)보다 전반적 자아가치를 높게 지각하며, 역시 3학년(58.42)이 6학년(54.21)보다 역량지각 전체에서 높은 점수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4〉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역량지각

하위범주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자승화	F
인지역량	연령(A)	1	13.67	13.67	1.93
	성별(B)	1	.40	.40	.06
	A×B	1	.54	.54	.08
	오차	297	2105.71	7.09	
사회역량	연령(A)	1	6.26	6.26	.87
	성별(B)	1	.83	.83	.12
	A×B	1	9.45	9.45	1.32
	오차	297	2134.02	7.19	
신체역량	연령(A)	1	277.42	277.42	20.49***
	성별(B)	1	129.11	129.11	9.54**
	A×B	1	.21	.21	.02
	오차	297	4020.84	13.54	
전반적자아가치	연령(A)	1	187.88	187.88	22.00***
	성별(B)	1	21.73	21.73	2.54
	A×B	1	6.72	6.72	.79
	오차	297	2536.02	8.54	
역량지각 전체	연령(A)	1	1318.43	1318.43	16.03***
	성별(B)	1	209.11	209.11	2.54
	A×B	1	.54	.54	.01
	오차	297	24429.76	82.26	

p<.01 *p<.001

〈표 5〉 아동의 귀인양식과 역량지각과의 상관관계

	역량지각전체	인지역량	사회역량	신체역량	전반적 자아가치
성공-내적	.350***	.366***	.269***	.234***	.219***
실패-내적	-.131*	-.203***	-.144*	-.072	-.007
성공-안정적	.234***	.220***	.173**	.130*	.209***
실패-안정적	-.368***	-.400***	-.289***	-.226***	-.240***
성공-전반적	.359***	.349***	.256***	.272***	.226***
실패-전반적	-.285***	-.298***	-.232***	-.181**	-.177**

*p<.05 **p<.01 ***p<.001

3. 아동의 귀인양식과 역량지각과의 관계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인 아동의 귀인양식과 역량지각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또 귀인양식과 역량지각의 제 하위요인들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에

서 보는 바와 같이 귀인의 각 하위차원은 역량지각 총점과 유의한 상관이 있으며, 귀인의 실패-내적 차원과 신체역량 그리고 실패-내적 차원과 전반적 자아가치 영역을 제외하고 귀인의 모든 하위 차원과 역량지각의 모든 하위영역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성공-내적, 성공-안정적, 성공-전반적 차원은 인지역량, 사회역량, 신체역량, 전반적

〈표 6〉 아동의 역량지각에 대한 중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아동의 역량지각	
	B	β
성공-내적	1.07	.17**
실패-내적	-.06	-.01
성공-안정적	.56	.10
실패-안정적	-1.59	-.25***
성공-전반적	1.24	.21***
실패-전반적	-.66	-.11*
회귀상수	45.85	
R ²	.28	
F	19.33***	

*p<.05 **p<.01 ***p<.001

적 자아가치 영역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으며, 실패-안정적, 실패-전반적 차원은 인지, 사회, 신체, 전반적 자아가치 영역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실패-내적 차원은 인지역량 및 사회 역량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역량지각에 대한 귀인의 각 하위차원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귀인의 모든 차원을 독립변인으로 고려하였을 때, 귀인의 실패-내적 차원과 성공-안정 차원의 회귀계수가 유의하지 않았다.

〈표 6〉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의 역량지각에 대한 귀인 차원의 상대적 영향력은 실패-안정적, 성공-전반적, 성공-내적, 실패-전반적 차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은 아동의 역량지각 변량의 28%를 설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귀인양식과 역량지각간의 관계를 고찰하고, 이와 함께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귀인양식과 역량지각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귀인의 실패-내적 차원에 있어서 남아는 연령별 차이가 없었으나 여아의 경우 3학년이 6학년

보다 실패를 보다 내적으로 귀인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귀인의 성공-안정적 차원에서도 연령차가 발견되었는데, 3학년 아동은 6학년 아동에 비해 성공을 보다 안정적 요인에 귀인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다소 상반되는 것으로 귀인의 통제소재 차원에서 연령차가 없다고 한 최우영(1994)의 연구나 연령증가에 따른 내적 통제 경향을 밝힌 연구(하영희, 1995)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일반적으로 귀인의 통제소재 차원을 고려한 선행연구들이 성공과 실패 차원을 구분하지 않은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Weiner(1980)도 성공 상황인가 또는 실패 상황인가에 따라 통제소재가 개인에게 주는 의미가 달라짐을 시사한 바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선행 연구들과 직접 비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귀인의 안정성 차원에 대한 연령적 발달 경향을 고찰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귀인의 각 하위차원에 대한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경우 성별에 관계없이 성공과 실패 두 차원 모두에서 내적요인에 귀인한다는 문은식과 김충희(1990)의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보다 초기에 이루어진 연구들에서는 여아들이 성공을 보다 외적으로, 실패를 내적으로 귀인하는 경향을 보고하였으나, 이러한 결과가 본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귀인의 성차를 고찰한 연구들의 일반적 경향으로 보아 성인의 경우 귀인의 성차가 비교적 명확하나, 아동은 성인의 경우처럼 성차가 명확한 것 같지는 않다. 대체적으로 성인 남성은 성공을 내적, 안정적 요인에 귀인하고 여성은 실패를 내적, 안정적 요인에 귀인하는 경향이 밝혀지고 있으나, 아동의 경우는 이러한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둘째, 역량지각의 하위영역 중 신체역량과 전반적 자아가치 영역에서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어 3학년이 6학년 보다 자신의 신체역량과 전반적 자아가치를 높게 지각한다. 이러한 결과는 공인숙(1989), 이주리(1994)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연령

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역량을 점차적으로 낮게 평가함을 의미한다. 이는 어린 아동의 경우 자신의 역량을 과대평가하며, 역량을 평가할 때 실제역량보다는 외적 특성이나 긍정적인 피드백에 의존하고 부정적 피드백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고학년 아동은 자신의 내적인 특성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역량지각의 판단 기준을 세분화하여 자신을 지각(Stipek, 1984)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역량지각의 하위영역 중 신체역량 영역에서만 성차가 발견되고 다른 영역에서는 성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가 여아보다 신체역량을 높게 지각한다는 대부분의 역량지각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지만, 신체역량에서도 성차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한중혜(1995)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신체역량에서의 성차는 아마도 운동과 신체적 활동이 주로 남성의 영역이라는 일반적인 고정관념이 아동의 성역할 사회화 과정에서도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아동의 귀인양식과 역량지각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 즉 성공을 내적, 안정적, 전반적 요인에 귀인할수록 아동은 자신의 역량을 높게 지각하였으며, 실패를 내적, 불안정적, 전반적 요인에 귀인할수록 역량을 낮게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취 상황에서 성공 결과를 내적, 안정적 요인에 귀인할수록 긍정적 정서반응 즉 유능감, 우월감, 만족감을 경험한다는 김언주(1988)의 연구 및 Weiner 등(1978)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학급상황에서 실패를 내적 요인 및 불안정적 요인에 귀인한 학생들은 자기가치감 저하를 경험하였으나, 실패를 외적, 불안정적 요인에 귀인할 경우 자존감에 별로 손상을 입지 않는다는 Covington과 Ornlich(1979)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는 성취상황이나 대인관계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의 긍정적 결과가 자신의 내적 요인에 의한 것일 때, 원인이 안정적으로 계속 작용할 때, 또는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이러한 요인이 작용한다고 생각할 때 아동은 자신을 보다 능력있는 존재로 지각하나, 실패의 경우는 역량지각에 대한 귀인 효과가 반대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즉 귀인의 각 하위차원이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 상황과 부정적 상황으로 구분하지 않을 경우 그 의미가 왜곡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의 역량지각에 대해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귀인양식의 하위차원은 실패-안정적 차원으로서, 아동은 실패의 원인이 안정적이어서 과거, 현재, 미래에 동일하게 이러한 원인이 작용한다고 느낄 때 자신의 역량을 가장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성공보다는 실패에 대한 경험이 심리적 적응이나 자아개념에 더 큰 영향력을 지니며, 실패나 부정적 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방식이 심리적 건강에 보다 큰 의미를 지닐지도 모른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논의를 근거로 하여 추후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귀인의 통제소재, 안정성, 전반성을 고려하였지만, Weiner의 모형에서 제시된 통제가능성 차원도 동시에 고려한다면 보다 포괄적인 귀인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역량지각 척도상의 제한점으로서 Harter(1982)가 제안한 선택형 문항이 응답상 혼란을 초래하는 경향을 보였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일부 지역의 아동들을 유의 표집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의 다양한 연령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선행연구들은 아동의 역량지각을 주로 부모 및 가정환경, 기타 사회적 환경과 관련시켜 연구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아동의 다양한 심리적 요인과 관련시킨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공인숙(1989). 부모의 운정 및 통제와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강원희(1985). 가정환경과 아동의 귀인성향과의

-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3) 김선미(1995). 아동의 내외통제소재와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4) 김언주(1988). 인지-정의 인과론에 관한 귀인론적 접근. 충남대학교 교육발전논총, 9, 1, 73-100.
 - 5) 김치영(1987).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과 학업성취.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6) 문은식·김중희(1990). 학습성취사와 성별에 따른 학교학습 성취귀인의 분석. 충남대 교육발전논총, 11, 1, 55-83.
 - 7) 오혜영(1982). 성취결과에 대한 인과적 귀인과정과 자아개념과의 상호관계 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8) 이미순(1995). 또래지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정서적 행동과 귀인.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9) 이남기·박정희(1995). 아동이 지각한 심리과정적 가정환경 및 양육태도와 유능감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 4, 265-278.
 - 10) 이주리(1994). 유아 및 아동의 가정환경 및 또래환경과 역량지각.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11) 최우영(1994). 사회성측정 지위에 따른 아동의 귀인유형과 사회적 부적응 감정.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2) 하영희(1995). 귀인경향에 따른 도덕성(도덕신념, 판단, 행동) 발달 분석. 울산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3) 한유진(1994).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성향 및 귀인양식과 학업성취.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한종혜(1995). 사회적 관계망과 아동의 자기역량지각과의 관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 2, 129-141.
 - 15) 한종혜(1996).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역량지각 및 자아 존중감. 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6) Cause, A. M. (1987). School and peer competence in early adolescence: A test of domain specific self-perceived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3, 287-291.
 - 17)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N. Freeman.
 - 18) Covington, M. V. & Omelich, 1979). Causal attributions causal? A path analysis of the cognitive model of achievement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487-1504.
 - 19) Crandall, C. Katkovsky, W., & Crandall, J. (1965). Childrens beliefs in their own control of reinforcements in intellectual-academic achievement situations. *Child Development*, 36, 91-109.
 - 20) Dweck, C. S. & Elliot, E. S. (1983). Achievement motivation. In E. M. Hetherington(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vol.4). New York: Wiley.
 - 21) Feather, N. T. (1969).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and valence of success and failure in relation to initial confidence and task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3, 2, 129-144.
 - 22)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23)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Wiley.
 - 24) Inkelas, A. (1968). Society, Social structure and child socialization. In J. A. Clausen(Eds.). *Socialization and Society*. Boston: Little Brown.
 - 25) Kaslow, N. J., Seligman, M. E. P., Tanenbaum, R. L. (1978). The KASTAN: A children's attributional styles questionnair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Pennsylvania.
 - 26) Kelley, H. H. (1972). Causal schemata and the attribution process. In E. E. Jones, D. E. Kanous, H. H. Kelley, R. E. Nisbett, S. Valins, & B. Weiner(Eds.). *Attribution: Perceiving the Causes of Behavior*. Morristown, NJ: General Learning Press.
 - 27) Lifshitz, M. (1973).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dimension as a function of age and socialization milieu. *Child Development*, 44, 538-546.
 - 28) Marsh, H. W., Cairns, L., Relich, J., & Debus, R.

- L. (1984). The relationship between dimensions of self-attribution, dimensions of self-concept, and academic achievem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6, 3-32.
- 29) Nicholls, J. G. (1975). Causal attributions and other achievement-related cognition: effects of task outcome, attainment value, and sex.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379-389.
- 30) Ogbu, J. U. (1981). Origins of human: A cultural ecological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52, 413-429.
- 31) Shaffer, D. R. (1994).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Pacific Grove, Californi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32) Stigler, J. W., Smith, S., & Mao, L. (1985). The self-perception of competence by Chinese children. *Child Development*, 56, 1259-1270.
- 33) Stipek, D. J. (1984). Young children's performance expectancies: Logical analysis or wishful thinking? In J. Nicholls(Eds.). *The Development of Achievement Motivation*. Greenwich, CT: JAI Press.
- 34) Weiner, B. (1980). *Human Motivation*. Holt, Rinehart and Winston.
- 35) Weiner, B., Russel, D., & Lerman, D. (1978). Affective consequences of causal ascriptions. In J. H. Harvey, W. J. Ickes, & R. F. Kidd(Eds.). *New Directions in Attribution Research*(Vol. 2) Hillsdale, N. J. : Erlbaum.